

회원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받다

니콜 시모어, 교회 잡지

제일회장단은 연례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전세계 회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탄절 정신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스며들게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관현악단은 템플 스퀘어에서 2004년 12월 4일 영적 모임에서 연주

했으며, 이 모임은 솔트레이크시티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방영되었다.

힝클리 회장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메시지에서 연말이 되기에 물론경을 읽는 사람들의 삶에 영적인 힘이 스



제일회장단이 연례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성탄절 장식에 둘러싸여 앉아 있다.

며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교회 회원들에게 상기시켰다.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몬경을 읽고 있었던 적은 없었을 듯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축복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몰몬경에서 인용한 성구를 읽고 몰몬경은 구주의 신성과 실재를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그의 간증을 나누었다.

“이처럼 훌륭하고 주목할 만한 몰몬경은 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이며 온 세상에 선포되어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이러한 것을 상호해 봅시다.”라고 히클리 회장은 말했다.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에 대해 기도해 봅시다. 또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성경뿐 아니라 성경과 짝을 이루는 신세계의 성약에 나온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따르도록 합시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희망과 격려의 말씀을 하며 성탄절 정신에 대해 말했다.

“이 기쁜 절기는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있어 성탄절 정신에 따른 만큼 우리 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행복을 느끼게 해 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절기는 기억하기 위한 시기입니다. 가족을 위한 시기입니다. 또한 감사를 표하는 시기입니다.”

몬슨 회장은 교회 회원들이 성탄절기에 받기보다 주는 데 역점을 둘 것을 호소했다.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줘요?’라는 질문은 고무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부드러운 감정이 솟게 하며 추

억의 불길이 더욱 밝게 비추게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까?”라고 그는 질문했다. “받기보다 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절 정신이 활짝 피게 됩니다.”

“이 절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 화평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고 몬슨 회장은 질문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성탄절기에 보다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고 보다 많은 적들이 용서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서 이 절기에 더욱 친절한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며 관용을 베푸는 것일까요? 성탄절 정신 때문입니다.”

파우스트 회장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성탄절 메시지에서 말했다.

그는 1941년에 있었던 멕시코의 한 가난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홉 자녀를 거느린 한 미망인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웃들은 성탄절

을 맞이하여 그 자녀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기 위해 시간과 돈을 제공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상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허리케인과 지진의 극심한 피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근에 교회 인도주의 지원 기금에 기부를 한 사람들은 실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파우스트 회장은 다른 종교를 믿던 과거의 사업 동업자를 회상했다. 그는 성탄절과 추수 감사절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이 사람은 궁핍한 자들을 찾아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순수한 사랑의 귀감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필요 사항을 보면 신속히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라고 파우스트 회장은 말했다. “구주야말로 구속주로서 속죄를 통해 자신을 바침으로써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



인부들이 산티아고 성전 내부를 개조하고 있다.

사진: 윌리엄 지역 제공

회원들이 칠레 산티아고 성전의 재개방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다

제이슨 스웬슨, 처치 뉴스 기자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일 년 이상 기다리는 것은 칠레 아리카 회원들에게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던 듯하다.

칠레의 유일한 성전이 재건축을 위해 문을 닫은 기간 동안, 아리카 회원들은 볼리비아 코차밤바 성전에 참석하려고 기차 편을 이용하여 동쪽의 볼리비아로 여행했다. 여행은 위험했다. 국경을 접한 인접 국가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칠레의 상품을 실은 기차가 볼리비아에서 공격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위험을 알고 있는 아리카 회원들은 안

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하고 성전에 갔으며 무사했다고 칠레의 지역 칠십인 엠 곤잘로 세폴베다 장로는 말했다. “사람들이 성전에 다시 가고자 하는 큰 소망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세폴베다 장로는 말했다.

대대적인 개장 후, 칠레 산티아고 성전은 2006년 2월 26일에 재헌납되어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소재한 106개 스테이크 및 지방부의 535,000명이 넘는 후기 성도들을 위해 다시 운영될 예정이다.

칠레 산티아고 성전은 원래 1983년에 당시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고든 비 힝클리 회장에 의해 헌납되어 운영 중인 교회의 24번째 성전이 되었다.

성전 건물의 확장 외에 성전의 외부 개축도 있었다. 성전의 침례실은 개축되어

열두 마리의 조각된 황소가 받치고 있는 새로운 침례탕이 설치되었다고 세폴베다 장로가 말했다.

아리카 회원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 볼리비아로 간 한편, 다른 칠레 회원들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으로 갔다. 그 외 수천 명의 충실한 칠레인들은 성전이 다시 개방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했다.

“성전이 개장을 위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칠레 회원들에게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원리에 일치되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되게 하자고 칠레 회원들에게 제의했습니다.”라고 칠레 지역 회장이며 칠십인인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는 말했다.



사진: 칠레 지역 제사장

2월에 성전이 헌납되기 전에 칠레 산티아고 성전의 대대적인 개조가 완료되었다.

칠레 회원들은 성전에 돌아갈 날을 준비하면서 칠레 산티아고 성전의 재현납을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했다. 세폴베다 장로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친척들을 2006년 1월 26일에 시작된 성전 일반 공개 행사에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 칠레의 교회 공보 직원들은 지역 언론과 협조하여 성전에

대한 관심을 일깨웠다.

헌납하기 하루 전날인 2006년 2월 25일에 산티아고의 14,000석의 스타디움에서 칠레 문화 축제를 열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 성전을 이용하게 될 지역의 후기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헌납식이 계획되었다. ■

2005년 12월 3일자 처치 뉴스에서 발췌

설계는 시골, 교외 및 도시 지역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회소의 필수적인 요소 및 표준 설계도를 제시한다. 이 계획에 따라 교회 집회소의 모습은 공통성을 갖게 되는 한편, 세부 작업은 특정 지역에 맞게 맞춤식으로 한다. 범세계 표준 설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 집회소의 새롭고 일관된 모델이 제시되었다. 그 모델은 2층에서 5층까지의 독특한 다층 설계이지만 설계의 다양성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교회 건축가들은 설계를 고안할 때 다양한 인구의 특성에 따른 필요 사항을 고려했다. 교실, 초등회, 상호부조회, 청년 교실 및 예배당의 크기는 상호부조회, 초등회, 또는 기타 조직의 참석 수가 회중의 평균 인원 수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에 맞게 계획되었다.

범세계 표준 설계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축 옵션은 성장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어떤 지역에 상당한 성장이 예측된다면, “단계적”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규모가 더 큰 와드나 추가적인 와드를 수용하기 위해 건물을 증설할 필요가 생길 경우,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각 단

전세계의 집회소 표준화로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예배 장소를 제공함

니콜 시모어, 교회 잡지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인 홍콩과 뉴욕의 경우, 건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층 빌딩을 짓는 것밖에 없다. 두 도시의 성전을 바라볼 때, 이들 도시 지역에 맞는 성전을 지으려면 혁신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집회소 설계도가 맞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회원들에게 예배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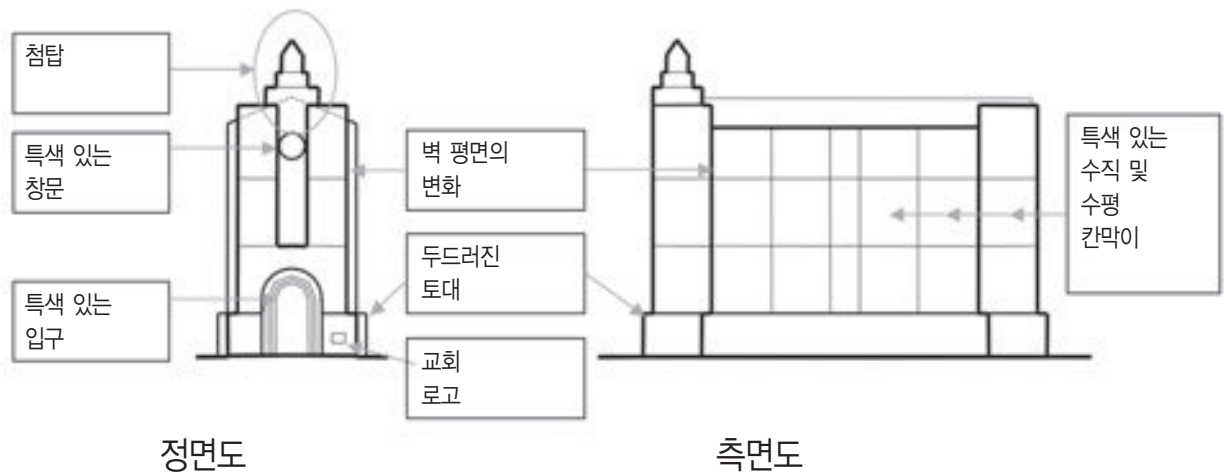
땅을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비싼 지역인 경우, 전형적인 집회소 설계도는 작은 평수의 땅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최근에 뉴욕과 홍콩에는 교회의 전세계 집회소 표준 계획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다층 집회소를 짓게 되었다.

표준 설계도를 개발함

위치, 건물의 크기 및 층수에 관계없이, 전세계의 집회소는 교회가 제시한 설계 지침에 의거하여 표준 양식을 지니게 된다.

2002년에 교회는 교회 집회소의 일반적인 설계와 관련하여 전세계 지역에 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범세계 표준



범세계적 집회소 표준 설계를 위해 교회 건축가들은 건물이 종교적 색채를 띠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확인했다.



도시 지역을 위해 계획된 다층 집회소는 북아시아 지역 집회소의 모양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계의 건축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원래의 건물을 단계적으로 증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에서 예배당은 이동식 의자를 갖춘 “다용도” 건물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활동실과 교실을 추가하고 예배당은 고정된 좌석을 갖추어 한 가지 용도로만 쓸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가 동일한 모습을

띠게 하며 집회소가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건축되도록 한다.

이러한 효율성의 한 예가 나타나 있는 유타 주 와사치 지역의 경우 교회는 성장에 발맞추어 다수의 집회소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 표준화를 통해 건축 비용이 20%까지 줄었다.

“건축비는 성스러운 십일조 기금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금의 채택

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설부 건축 및 엔지니어링과의 범세계 표준 설계과 책임자 랜디 스텐슨은 말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교회 집회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훌륭한 건축 프로그램은 과히 경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필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축 구조물은 아

름답습니다. ... 우리는 예배의 집을 건축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광범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과거 그 어느 때에 지은 것보다 더 훌륭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아름다움과 뛰어난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비슷해 보인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결과 믿을 만한 양식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면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현황,”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쪽)

설계를 시행함

범세계 표준 설계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의 집회소 건축을 위해 교회가 고용한 현지 건축가들에게 설계 지침과 평면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스텐슨 형제는 말한다. 이 설계 지침과 평면도는 지역과 지역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설계도를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된다.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할지, 또한 자연 환기 장치를 사용할지 기계적 환기 장치를 사용할지 등 세부 사항은 현지에서 결정한다.

집회소가 건축되는 지역이 어디든, 건물의 모양과 느낌을 창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건축가는 특정 지역의 문화, 환경 및 건축법규를 고려해야 한다.

여러 경우 몇몇 지역에서는 건물의 모양을 주위 환경과 조화시키거나 특정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변화를 준다. 동유럽과 호주 오지의 집회소들은 범세계 표준 설계 프로그램에 명시된 동일한 지침과 원칙에 따르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모양을 띠 수 있다.

부지에 따라 약간의 맞춤식 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스텐슨 형제는 부지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부지를 선택해서 표준 설계를 수정하기보다는 올바른 부지를 선택해서

설계를 그 부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올바른 부지는 교회를 세상에 알리고 성도들이 부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 주는 비결입니다.”

도시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킴

몇몇 도시 지역의 경우, 다층 건물이 단층 집회소보다 실용적이다. 보통의 집회소는 2.5 에이커 내지 5 에이커의 부지에 지어지는 반면, 폭이 약 13m 되는 다층 집회소는 4분의 1 에이커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부지에 지을 수 있다. 다층 집회소는 비슷한 규모의 단층 집회소와 동일한 수용력을 가진, 같은 수의 방으로 구성되지만 단지 수직으로 지어진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도시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계 곳곳의 도시에서 다층 집회소가 건축되고 있다.

뉴욕 시 할렘에 사는 회원들은 적합하지 못한 산업용 건물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었다. 5층짜리 새 건물의 건축이 승인되었는데, 이 건물은 상부 2층은 미완 상태로 둔 채 앞으로 예상되는 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3층짜리 집회소가 건축되었다.

5층으로 이루어진 설계는 일층에 주차장, 2층에 예배당, 3층과 4층에 교실 및

사무실, 5층에 활동실로 구성되어 있다.

다층 집회소에 대해 교회 본부의 건축가들은 건물이 사무실 건물이라기보다 교회로 인식될 수 있고 교회가 일관성 있고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게 할 요소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 그들은 역사상 중요한 성전 및 성당을 포함한 종교 건축의 최고 건축물을 연구했다. 이러한 건물에서 종교적 성격을 띤 핵심적인 설계 요소들을 다층 집회소의 표준 항목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건축 및 엔지니어링과의 전세계 집회소 고객 담당 책임자인 웨인 볼은 말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에는 탑과 뾰족탑, 특색 있는 정면 창문 및 입구, 두드러진 토대 및 교회 로고가 포함된다. 지역 건축가들은 이러한 부분이 결정된 후 핵심 요소, 구조, 건축 자재, 색깔 및 기타 세부 사항을 적절히 정한다.

집회소, 예배의 장소

볼 형제는 집회소의 양식, 높이, 또는 위치에 관계없이 범세계 표준 설계 프로그램의 취지는 교회 시설부가 신권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전, 집회소 및 기타 시설들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

브라질 어린이들이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다

네이 가르시아

교회의 브라질 어린이들은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2년째 휴일인 어린이날을 바쳤다. “도움의 손길” 조끼를 입은 25,000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약 40,000명의 교회 회원들과 친구들이 브라질의 120개 도시와 26개 주에서 거의 16,000명의 노인들을 도왔다.

이 행사에 앞서, 어린이들은 청소년 및 성인들과 함께 노인들에게 나누어 줄 개인 용품 세트를 만들고 카드를 색칠하고 준비했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은 300곳의 양로원을 찾아가 세트를 나누어 주고 경험을 나누며 어린이날을 모든 세대를 위한 축제의 날로 만들었다.



브라질의 회원들이 어린이날에 양로원의 노인들을 방문하다.

여러 도시에서 청소년 자원 봉사자들의 부모들은 양로원을 수리하고 노인들의 머리와 손톱 등을 다듬어 주며 기억할 만한 하루를 보냈다. 그 외에도 합창단 공연, 연극 및 무용 등의 활동도 있었다.

벨로리존테에서 500명의 소년소녀들이 광장에 모여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다음 12곳의 양로원을 방문했다. 한 양로원에 사는 마리아 도 카르모라고 하는 98세의 할머니는 손자손녀가 없지만, 그날 하루 동안은 많은 손자손녀들을 얻었다. “정말 좋아요.”라고 그녀는 외쳤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행복해요!”

포르투알레그레에서 3,000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은 40곳의 양로원에서 1,300명 이상의 노인들을 방문했다. 상파울루 주에서 자원 봉사자들은 45개 도시에 있는 90곳의 양로원을 방문하여 약

4,500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브라질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부와 북동부 지역의 회원들은 8,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봉사에 참여했다.

살바도르에서 아브리고 데 상 가브리엘 양로원에 거주하는 45명의 노인들은 9세의 가브리엘라 콘세시냐오를 포함한 70명의 어린이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콘세시냐오 양은 가장 최근에 ‘입양한’ 할머니를 포옹하며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도 한때는 어린이였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가족처럼 보살펴야 해요.”

미나스제라이스에서 브라질 우베라바 스테이크는 그 도시에 있는 10곳의 양로원을 방문했다. 에릭 맥시모 스테이크 회장은 그 방문에 대해 크게 고무되었으며 스테이크 회원들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했다.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날에, 우리

자녀들은 이웃들에게 참다운 선물을 주었고, 어린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가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을 나누는 순간에 자신들을 바친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다른 시간대에 브라질의 최대 텔레비전 방송국인 TV 글로보는 이 행사에 대해 30초 동안 안내 방송을 했다. 대다수의 도시들과 거의 모든 주의 수도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은 이 행사를 취재하여 보도했다.

북부 브라질의 나탈에서 TV 글로보 방송 기자인 소요나라 알베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많

은 사랑을 보여 주었으며, 반기보다는 주었습니다.”

다른 TV 방송국들도 그날 다른 시간대에 이 행사를 취재하여 상파울루 주의 318개 도시에 방송을 내보냈으며,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증가했다.

모든 행사는 각 지역 도움의 손길 프로그램 책임자의 인도를 받았다. 책임자는 민간 기업, 정부 기관 및 언론 기관의 도움을 받았고, 이 외에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도움의 손길 행사는 2001년부터 실시되었고, 이 나라의 수많은 사회 봉사 단체들이 참여했다. 2005년에 여러 도시에서 150건 이상의 행사가 펼쳐졌다. 2005년 4월에는 약 50,000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에서 약 200곳의 공립 학교를 수리하고 청소했다. ■

2006년 4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4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회개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를 참조한다.

1. 질문과 복음 그림 패킷의 그림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구주의 생애를 복습하게 한다. 예를 들면, 복음 그림 패킷 200 (예수님의 탄생)을 높이 들고 구주의 탄생을 복습한다. 어린이들에게 그림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구주의 탄생에 대해 아는 바가 무엇인지, 그림 속의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질문한다. 다음의 그림을 이용하여 비슷한 질문을 한다. 209 (어부들을 부르심), 230 (십자가에 못박히심), 및 239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각 어린이에게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를 나누어 준다. 어린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 여러분이 이야기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지명한다.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피아노 반주자에게 조용한 배경 음악을 연주하게 한다. 각 그룹으로 하여금 그들의 그림을 보여 주게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구주와 그분이 지상에 오시게 된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다.

장갑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부활에 대해 가르친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을 보여 주고 우리가 지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영이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움직이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배울 수 있었다. 우리가 지상에 왔을 때, 우리 각자는 육신을 받았다 (장갑을 낀다). 우리는 지금도 움직이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배울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보살펴야 할 훌륭한 육신을 지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과 영은 분리된다 (장갑을 벗는다). 육신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아직도 살아 있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영과 육은 다시 합쳐지게 되고 (장갑을 낀다) 영과 육은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였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 중 몇 명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175~177쪽 참조) 복음 그림 패킷의 그림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각 그림 뒷면에 있는 그림 설명을 읽거나 그들 스스로 그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각 그림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부를 노래나 찬송가를 선택한다. 몇 가지 그림을 제언한다면 233 (마리아와 부활하신 주님), 315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심), 403(첫번째 시편)을 들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교리와 성약 76편 22~33절을 읽게 한다.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간증했듯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간증한다. ■



모든 청년 독신 성인 회원들에게 알립니다!

다음은 제3회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독신 회원들의 활동에 대한 지침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1. 한국 청년 독신 성인 네트워크 결성

스스로 만드는 모임 독신 회원들의 모든 활동은 매년 1월 셋째 주에 열릴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전국의 독신 의장들이 모여 계획하고 조정합니다. 그곳에서 결정된 전국의 독신 회원들의 활동 일정은 함께 공유합니다.

청년 독신 성인들의 전국 소식지 발간 중부 종교교육원이 주체가 되어 전국에서 일어나는 독신 회원 활동 소식을 담은 소식지가 발간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신 회원들의 활동 내용은 전화회의 및 인터넷 카페에서 공유하고 한국 교회 홈페이지의 종교교육원, 스테이크/지방부란을 활용하여 소개합니다.

2. 청년 독신 성인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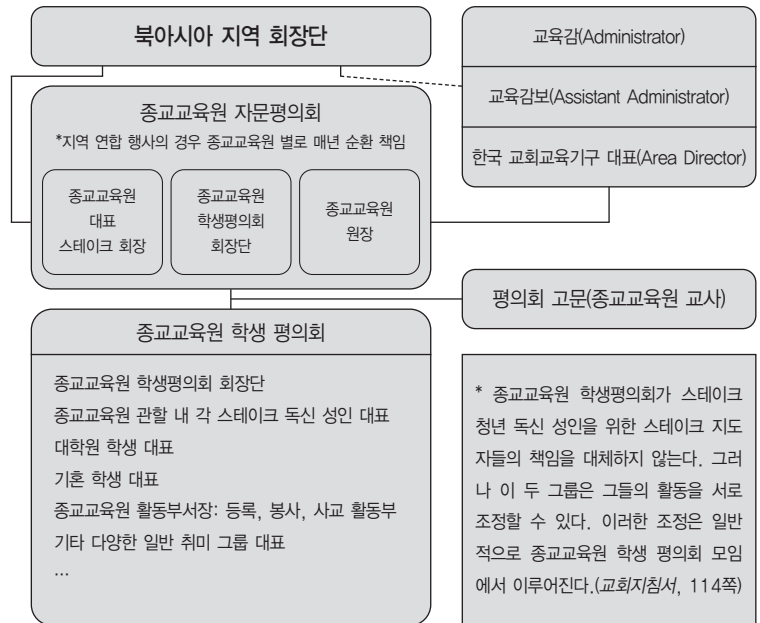
청년 대회 4년 주기의 계획을 시행합니다. 이 계획은 4년마다 반복됩니다.

- (㉠) 1년차(2006년) - 각 스테이크/지방부 별로 대회 개최(봉사 활동 또는 산행, 스테이크 가족 캠프 형태)
- (㉡) 2년차(2007년) - 전국 5개 종교교육원 별로 종교교육원 산하 스테이크/지방부 연합 대회 개최
- (㉢) 3년차(2008년) - 종교교육원 경계를 넘어 스테이크/지방부 연합 대회 개최(연합할 경우 최대 4개 지역이 모일 수 있다. 지역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 (㉣) 4년차(2009년) - 전국 청년 대회
이 계획에 따르기 위해 2006년 청년 대회는 각 스테이크/지방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대회에 모든 청년 독신 성인이 참여하도록 청소년 대회는 겨울에 실시합니다. 단, 여름에 청소년 대회를 해야 한다면 부모나 기혼 회원들이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합니다.

전국 청년 독신 성인 축제 매년 독신 회원들의 축제를 전국 단위로 개최합니다. 다섯 개 종교교육원이 돌아가며 주관하고, 분야는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공연장을 빌려서 회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의 독신 회원들의 개인 및 단체 공연을 할 것입니다. 2006년에는 중부 종교교육원에서 음

악제를 준비하고 있고, 2007년에는 광주 종교교육원에서 민속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3. 한국 청년 독신 성인 조직



각 스테이크/지방부 독신 대표는 그 지역 종교교육원에 모여 종교교육원 독신 평의회에 참석합니다. 이 평의회는 독신 회원 중 한 명이 의장으로 봉사하며, 담당 신권 지도자로 종교교육원 산하 스테이크/지방부 회장이 봉사합니다. 이 평의회를 통해 여러 지역의 활동 모임을 조정하여 모임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더 효과적인 독신 활동을 모의합니다. 이 평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스테이크/지방부 회장단에 통보되어 각 지역에서 신권 지도자들의 지지와 축복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역 칠십인이자 교회 교육 기구 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민혜기 장로는 “모쪼록 차세대 교회 지도자인 이들과 함께 협의하고 결의한 사항들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세심하게 스테이크 및 종교교육원 일정에 반영되어져서 각 스테이크는 물론, 한국 교회 전체에 또 하나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며 새로운 계획에 거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보물 찾기

보물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론 신권-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한 여름 푸른 그늘을 사랑하는 덩쿨손은 그 사이사이에 곧고 긴 나무 막대기를 품고 있다. 푸르게 돌아나는 연약한 줄기가 멋진 그늘이 되기까지는 덩쿨에게 힘이 되고 방향을 잡아 줄 막대를 대는 주인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다. 교회의 미래라 불리는 초등학교 어린이와 청년, 청년들을 위해 제일회장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론 신권-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라는 쇠막대를 마련하였다. 이 쇠막대가 인도하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자.

목표 달성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발전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복음 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좋은 습관과 간증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가게 된다. 세 가지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과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관들을 가르치고, 그 가치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훈련하는 활동 목록

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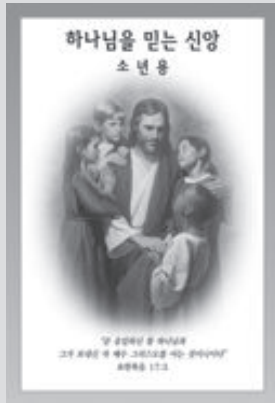
초등학교 -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침례받을 때 맺은 침례 성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표준을 배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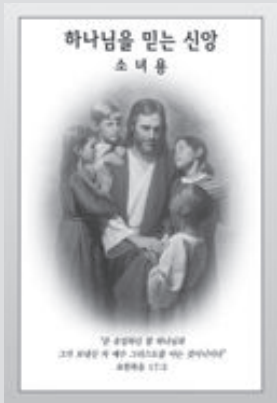
▶ 기본 요건

-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는다.
 - 계명을 지키고, “나의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한다.
 - 부모를 존경하고, 가족에게 친절히 대한다.
 - 십일조를 바치고, 십일조 결산에 참여한다.
 - 정규적으로 성찬식과 초등학교에 참석한다.
- ▶ 기타 요건
- 여러분의 간증을 적는다.
 - 신앙개조를 외우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도전하여 배워야 할 몇 개의 목록이 더 있다. 그것은 “복음 학습 및 복음 생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 재능 개발, 신권을 받기 위한 준비(형제), 청년이 되기 위한 준비(자매)” 이 네 가지이다. 각 목록은 이것을 향상하도록 훈련하는 활동을 열 개씩 제안한다. 어린이들은 매년 각 목록에서 두 가지씩 달성해야 한다.



물품 번호: 36812 320



물품 번호: 36813 320



물품 번호: 36035 320



물품 번호: 36676 320



물품 번호: 36677 320



물품 번호: 36678 320

아론 신권-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아론 신권-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는 청남들이 받는 신권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집사, 교사, 제사 신권 소유자에게 필요한 가치관을 제안하고 훈련시킬 활동 목록을 담고 있다. 청남들은 차례로 이 목표들을 달성해야 한다. “신권 의무와 표준, 가족 활동, 정원회 활동, 개인 목표(영적인 발전, 신체적인 발전,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하나님에 대한 의무 봉사 활동, 나의 개인 일지” 등의 목록은 청남들이 언제 어디서든 신권 소유자로, 지도자로 봉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각 목록에서 제안하는 모든 활동을 완수해야 하고, 개인 목표 목록은 각 활동들 중 여덟 개를 완수해야 한다.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는 청녀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성전 의식을 준비하며,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가르친다. “신앙, 신성한 성품, 개인적인 가치, 지식, 선택과 책임, 선행 및 고결성” 등 일곱 가지 가치관을 제안하고 이를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활동을 담고 있다. 각 가치관마다 열거된 일곱 개 활동 중에서 1번 활동부터 3번 활동까지는 반드시 해야하고, 4번부터 7번 활동은 선택하여 그 중 세 가지를 달성한다. 각 가치관에서 여섯 개의 활동을 완수한 뒤에 각 가치관 별로 스스로 계획한 활동을 한 가지씩 더 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것이다.

활동 계획하기

프로그램에 나온 활동들이 각기 소요 시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명하고 융통성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활동을 선택하여 시작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지도자는 프로그램에 나온 활동을 수행할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목록에서 “신앙개조 제12조를 읽는다. 훌륭한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라는 활동을 한다면 어린이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가족 회의나 가정의 밤, 부모와의 접견 시간, 초등학교 시간일 수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중 ‘지식’에서 “2. ... 미래의 가족이나 가정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기술이나 재능을 배운다.”라는 활동을 할 경우에 청녀가 배우고 싶은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와드나 스테이크, 또는 지역 사회에서 찾아 초대하여 청녀들이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같은 활동을 선택하여 함께 달성하는 것이



함께 개인 발전 기록부 활동을 계획하는 청녀와 청녀 역원.

더 효과적이다. “아론 신권 - 하나님의 대한 의무” 중 “신체적인 발전”은 중거리 달리기와 수영, 야영 활동, 응급 처치법 등을 배워야 하는데 와드의 청소년들이 함께 한다면 청소년과 역원들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적인 여건 상 수행하기 힘든 활동 목표가 있을 수 있다. 개종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정의 밤에서 공과를 해야 하는 활동을 하거나 정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지역의 청남들이 ‘아론 신권-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에서 일곱 가지가 나열된 ‘정원회 활동’을 해야 한다면 역원들은 적절하게 대체 방안을 계획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완수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가진 탁월한 영향력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과 성품에 미칠 수 있게 부모와 역원들의 지혜로운 도움이 필요하다.

동반자 - 부모와 역원들

이 프로그램에서 훈련하는 것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새로운 것들이다. 생소한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겪는 실수와 그 안에서 얻는 크고 작은 성과들을 곁에서 돕고 나눌 동반자가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은 그 동반자로 부모와 역원들에게 부름을 주었다. 활동을 선택할 때는 부모나 역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활동을 마친 후에도 부모나 역원에게 보고한 뒤에 서명을 받아야 완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활동을 수행할 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이 많고, 가정의 밤, 성찬식, 각 보조조직 모임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기에 부모와 역원들의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다. 도움과 계획, 경험과 간증을 이야기하는 접견이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다. 무엇 보다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할 수 있게 격려와 사랑으로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일 것이다.

이것을 필수! - 일지 쓰기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간증과 경험을

일지에 기록하는 것이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성장 기록인 일지는 활동 완수를 보고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에는 프로그램 활동에 관련하여 일지를 쓸 때 이런 목록을 쓰도록 제안했다. 선택한 활동, 활동을 실행할 스스로의 계획, 부모나 지도자의 승인 서명, 완수 예상일,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는지), 부모 또는 지도자의 서명, 날짜, 소요 시간, 아울러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기록하는 것도 프로그램에서 권고하는 부분이다.

노력이 열매를 맺다 - 달성 증서와 메달

모든 프로그램을 완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감독/지부장과 접견을 하며 자신의 프로그램을 보고한다. 그 후 프로그램 완수를 증거하는 증서와 메달을 받는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 청녀들이 쓴 일지. 발산 와드 청녀들은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며 배웠던 것들을 사진과 글로 기록한다고 한다.

쇠막대를 잡아라

1. 서울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 청녀

서울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 청녀들은 지난 3월 첫째 주 토요일에 새로 생긴 치마를 입고 사진을 찍었다. 약 한 달 동안 상호부조회 회원의 도움을 받아 서툰 마름질, 바느질 솜씨를 동원하여 직접 치마를 만든 것이다. 발산 와드 청녀들은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할 때 같은 활동을 선택하여 토요일 상호 향상 모임 시간에 함께한다. 학업 때문에 바쁜 청소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재미를 느끼며 프로그램을 완수하도록, 청녀들의 흥미를 끄는 모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청녀 회장단은 청녀들이 즐겁게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했다고 한다.

ㄱ. 모임할 때마다 사진을 찍는다.(이렇게 했을 때 청녀들이 긴장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ㄴ. 교회에 갈 때는 회장단과 함께 간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와드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회장단의 차로 함께 이동한다.)

ㄷ. 회장단이 함께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한다.(청녀들이 회장단이 쓴 일지를 보며 영향을 받는다.)

ㄹ.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와드 회원들의 도움을 요청한다.

모임을 하며 찍은 사진들은 청녀들의 개인 일지에 함께 보관된다. 사진이 들어간 일지를 쓰면서 예쁘게 일지를 꾸미는 것에 공을 들이는 것도 개인 발전 기록부 프로그램이 청녀들에게 선사한 변화 중 하나라고 한다.

고등학교 2학년인 김지은은 자매는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며 느낀 바를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개인 발전 기록부를 시작할 때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기도하거나 몰몬경을



서울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 청녀와 청녀 회장단. 청녀들이 입은 체크 무늬 치마는 개인 발전 기록부 활동으로 청녀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읽으면서 극복하려고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어를 배운 것인데, 정말 설레었던 기억입니다. 그 때 느낌을 잘 표현하기 어렵지만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언어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가 배우는 데에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을 성취했을 때 엘마서에서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는 엘마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 활동은 이렇게 제게 도움을 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친구와의 관계도 더 나아지게 도와 주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머니가 되면 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합당한 성도가 되는 방법과 사회에서 일등이 되는 방법을 동시에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2.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청남 임종민 형제 가족

올 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임종민 형제는 교사 직분에 성임되었다. 지난 2년 동안 임 형제는 '아론 신권-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중 집사 과정을 달성하였는데 이 과정을 함께한

어머니 이옥 자매는 아들의 변화를 이렇게 기억한다.

“가정의 밤에서 가족에게 공과를 가르치고, 식사를 준비하고 스스로 운동화를 빠는 모습이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악기를 배워서 성찬식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로서 참 기뻐했습니다. 간증과 기쁨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하는 청년이 되기를 바랐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아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려 노력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정의 밤 시간을 활용하여 활동 상황을 함께 토론하는데, 성취한 부분을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수정하면서 아들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나 이 주일이 걸리는 활동을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이 제 마음을 뿌듯하게 합니다.”

가정의 밤 공과를 준비해서 가족 앞에서 교리를 가르쳤던 것이 가장 보람있는 활동이었다는 임종민 형제는 집사 과정을 달성하면서 이런 목표를 갖게 되었다.

“제가 해야 하는 일 중에서 선교 사업을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모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물문경을 꾸준히 읽어서 선교 사업을 가기 전에 다섯 번은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효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사 정원희 제1보좌로 부름을 받은 임 형제는 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 초등학교 강규이 자매, 강한빛 형제 가족

“나는 소리 지르거나 징징거리지 않고 표현한다.

나는 진지하며 고상하고 친절하다

나는 똑바로 눈을 바라보고 똑똑하게 말한다.”

매일 아침 규이와 한빛이는 문에 붙인 이 세 문구를 소리 내

어 읽고 가족과 함께 기도한 후에 학교에 간다. 올 해 초등학교 5학년인 강규이 자매와 3학년인 강한빛 형제는 부모님의 사려 깊은 도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있다. “활동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가정의 밤 활동입니다. 딱지치기, 성전 그림 그리기 같은 것을 했는데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모두 재미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침에 함께 경전을 읽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설명하고 간증해 주시면서 좋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전을 읽어주시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면 경전을 많이 읽게 되어서 재미있습니다.”

물론 규이와 한빛이가 처음부터 모든 것에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어머니 이경화 자매는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자신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려 노력했다고 한다.

“접견이나 가족 평의회, 아빠와 아이들의 데이트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서로 우애있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자주 이야기하죠. 저희나 아이들이나 그런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운다기 보다 행복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프로그램 중 경전 읽기를 하기 위해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무조건 일어나라고 소리치지 않고 뽀뽀를 해주면서 깨웠을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길러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발전은 부모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깨닫고 복음대로 생활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 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낄 때 부모로서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늘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임종민 형제 가족, 왼쪽부터 아버지 임만규 형제, 임종민 형제, 어머니 이옥 자매.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 규이와 한빛이네 가족, 왼쪽 위부터 어머니 이경화 자매, 아버지 강남현 형제, 막내 강한영 자매, 큰 딸 강규이 자매, 아들 강한빛 형제.

특별 모임

“선교사들은 회원들이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 선교부 링우드 회장의 안내가 방송되자 선교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맨 가장자리 통로로 자리를 옮겼다. 선교사들이 벽을 따라 서서 병풍을 만들자 좌석과 통로에 있는 모든 공간은 회원들과 구도자들이 촘촘하게 메우기 시작한다. 단상에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 윌리엄 알 워커 장로와 지역 칠십인 민혜기 장로, 이용환 장로, 서울 서 선교부 링우드 회장, 서울 선교부



셀러스 회장과 각 스테이크의 회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입주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여실히 보여준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 함께하는 노변의 모임은 지난 2월 19일 저녁, 서울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첫번째 연사였던 링우드 회장은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라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아울러 회원들에게 각 와드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뒤이어 연단에 선 워커 장로는 아이어링 장로의 말씀에 앞서 “우리는 오늘 십이사도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 우리의 귀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이라는 말로 청중을 부르며 말씀을 시작한 아이어링 장로는 먼저 구주의 사랑과 실재하심에 대해 간증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

하게 되도록,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되도록, 언젠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있도록 속죄하셨습니다. ... 깨끗해지지 않으면 주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어링 장로는 이날 모임에서 영원한 가족과 해의 왕국의 축복을 위해 성신을 동반자로 생활하도록 권고했고, 그 권고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말씀했다.

“성신이 동반하도록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신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 물론경은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책 같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것은 성신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경을 읽으면 성신은 우리와 가까이 하게 됩니다. ... 성신은 악한 것과 분쟁에 의해 상합니다. 분쟁, 악에서 멀리 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분쟁이라도, 악한 것이 텔레비전에서 보일 때 빨리 지나가십시오. 우물쭈물하면 성신이 떠납니다. 회개는 매일, 매시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간구하십시오.”

시중 재치있는 말로 청중들을 웃음짓게 한 아이어링 장로는 말씀하는 시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어링 장로는 말씀을 마치며 “헝클리 회장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 민족 만큼 노래를 잘하는 민족은 없습니다.”라며 이날 합창을 한 인천 위트니스 합창단과 서울 남 스테이크 합창단의 노래를 칭찬했다.

한편, 아이어링 장로의 간증과 권고는 모임에 참석한 수많은 이들에게 성신과 함께할 때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다. 특히 이날 구도자로 참석한 두 가족이 침례의 물가로 다가갈 수 있게 한 큰 힘이 되었다.



가운데 서 있는 박대생 형제와 석정숙 자매는 양 옆에 선 구본경 자매와 최윤환 형제의 소개로 교회를 알게 되었다.

구도자로 이 모임에 참석했던 박대생 형제와 석정숙 자매는 아이어링 장로의 말씀 속에서 그동안 고민해 왔던 문제에 대한 열쇠를 찾았다고 한다. “아이어링 장로님이 말씀하시다가 침례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였어요. 손가락으로 어느 한 곳을 지적하면서 “침례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분명 저를 가리켰다고 느꼈습니다. 제 주변은 대부분 회원들과 아이들뿐이었어요. 장로님이 저희 가족을 위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는 듯했어요. 저는 그것이 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지기 친구를 통해 교회를 알게 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침례를 망설이던 이 가족은 노변의 모임 일주일 후인 2월 25일에 안양 스테이크 금천 1와드 회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침례를 받았다.

지금은 인천 스테이크 담동 와드 회원이 된 윤승준 형제 역시 이 모임에 참석한 후에 침례 받고 개종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십이사도 중 한 분이 오신다기에 저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이신 것처럼 큰 기적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족, 행복, 사랑 등의 외로 평범한 소재로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당시에는



윤승준 형제와 윤 형제의 딸 윤주희 자매의 침례식.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모임 후에 일상에 돌아와 생활하다보니 그때 들었던 장로님의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제 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웠습니다.” 윤승준 형제는 딸 윤주희 자매와 함께 3월 5일에 침례를 받았고, 어린 시절 침례를 받았던 아내 이효원 자매와 함께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나선경 기자, 조현아 기자)

지역 소식

광주 스테이크 '아담과 이브' 모임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회원들이 지난 2월 25일, '아담과 이브' 활동으로 해남 대흥사와 두류산 일대를 등반했다. '아담과 이브'는 효도 프로그램으로,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교회 내 노년층 회원들을 위해 나들이와 식사 초대 등 여러 활동을 펼친다. 이번 등반에 참여한 정순환 형제는 “그 동안 이렇게 여행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 즐거웠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 주어서 감사”하다며 모임을 준비한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광주 스테이크는 지난 해부터 65세 이상 회원들을 위한



'아담과 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을 나선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

모임을 계획하였고,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직접 배운 기술로 어르신들의 발을 마사지하는 활동과 레크레이션, 봄소풍, 온천 여행 등을 통해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다.(최진 기자, 기사 제공 박성률 형제)

우림 장학 재단 장학 증서 수여식

우림 장학 재단은 지난 2월 11일, 서울 동 종로 교육원에서 장학 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후기 성도 학생들은 우림 장학 재단의 장학금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학업에 대한 열의를 갖게 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재단 대표인 최옥환 형제는 “재단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후기 성도 학생들을 위해 여러 성도의 작은 정성이 모인 것”라며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전건우 기자)

청주 스테이크 최수영 형제, BYU 하와이 대학교에서 순금 졸업생상 받다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최수영 형제가 미국 브리검 영 하와이 대학교에서 순금 졸업생상을 받았다. 이 상은 개교 50주년을 맞아 국제적인 평화와 발전에 공헌한 동문 12명을 선정하여 수여한 것이다. 최 형제는 현재 청주 스테이크 청남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기사 제공 최수영 형제)

새로 부름 받은 한국 취업 센터 책임자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전종철 형제와 차영심 자매가 복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전종철 장로와 차영심 자매는 한국 취업 센터 책임자로서 각 지역의 취업 담당 직원들을 훈련하고, 회원들의 진로 교육과 상담 활동을 하며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할 것이다. 성전 사무장으로 지난 해에 은퇴한 전종철 장로는 서울 동부 지부 회장,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감독, 서울 북 스테이크 회장단, 서울 선교부 회장 등으로 봉사했고 차영심 자매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청년 대회에서 만난 부부 이야기

지금 함께 지내는 영원한 동반자를 청년 대회를 통해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주변에서 그런 부부를 보신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역의 리아호나 기자들이 직접 도와 드립니다.

부문: 배우자를 만나게 된 이야기와 간증
사진: 가족 사진 1장, 청년 대회 사진 1장
기한: 4월 25일까지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이민희)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62)

바로 잡습니다

지난 3월호 리아호나 지역 소식 9쪽 새로운 회원의 개종 이야기에서 한승수 형제의 아버지의 성함을 “장승택”에서 “한승택”으로 바로 잡습니다.

지역 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광주 종교교육원
갈릴리 축제 및 졸업식, 입학식
- 부산 서 지방부
신입 독신 환영회
- 부산 스테이크
제2회 부산 스테이크 회장 배 축구 대회
- 전주 스테이크
동반 대회
전주 와드 청소년 축제 “나이트”
- 청주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졸업식과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감독: 윤석주(전임: 이상교)

서울 남 스테이크

신림 와드 감독: 전경일(전임: 길윤수)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1명



김정용 장로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
뉴욕 남 선교부